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빅토리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1:5-8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큰 사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1월 5일	11월 12일
강민선	윤하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온라인 주일설교 : 주여 누구십니까?

본문 : 롬8:1,2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느순간부터 부모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부모들은 어느 순간부터 짜증을 내면서 나중에 다 알게 될꺼라며 그들의 질문을 귀찮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해 보세요. 너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반문하면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이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훈련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없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지한 질문 속에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그것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신약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장문의 서신을 남기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순간 바울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그동안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을 일 증명이 되는 답이었고, 둘째는 자신이 그동안 괴롭힌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괴롭힌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바울이 평생토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악의 문제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그때 얻은 답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2절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 받게 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복적으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옥터가 흔들려 옥문이 열렸음에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도를 통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그때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모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며, 뜻을 찾는자입니다.